

“인생2막, 전북에서 시작하세요”

귀농·귀촌인 맞춤형 서비스 제공 위한 빅데이터 구축 속도

전북도는 귀농 귀촌인에게 맞춤형 서비스제공을 위한 귀농귀촌 서비스 모델 빅데이터 분석 연구용역을 통해 12월 초까지 귀농귀촌 인스톨 정보제공 모델을 개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착수보고회는 19일, 도청 영상회의실에서 농촌활력도와 정보화총괄과 등 관련부서와 전북대학교, 전북연구원, 전북귀농귀촌지원센터, 한국국토정보공사 등의 자문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귀농·귀촌 서비스모델 빅데이터 분석 연구’ 착수보고회를 가졌다.

이번 ‘귀농귀촌 서비스모델 빅데이

터 분석 연구’ 착수보고회에서는 서비스모델 구축방안과 향후 운영계획을 공유하고, 13개 시군 및 유관기관과의 공동 활용방안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고, 귀농·귀촌 가구에 대한 맞춤형정책과 지원체계를 안내하여 도시민의 도내 유입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번에 수행하는 ‘귀농귀촌 서비스 모델 빅데이터 분석 연구’는 퇴직 뒤 전원생활 동경, 경제 불황에 따른 도시 일자리 부족,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 등 사회적 요인에 따른 복합적으로 작용 귀농·귀촌 희망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귀농 귀촌

가구의 유지와 안정적인 정착지원을 위한 효율적 지원정책을 마련하려는 것이다.

주요과제로는 첫째, 귀농·귀촌 빅데이터 구축이다.

귀농·귀촌별로 각각 나누어서 전라북도 행정자료 및 통계청,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 등 필요한 데이터 수집으로 융합 관리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개인별 맞춤형서비스를 위한 귀농귀촌의 성공과 실패, 기 귀농귀촌자·예비귀농귀촌자 등 세부 데이터 확보할 계획이다.

둘째는 빅데이터 기반 귀농·귀촌

현황 특성분석 및 의사결정 요인 제시다. 전라북도 귀농·귀촌 현황 분석 및 타 기관의 데이터 분석을 통해 귀농과 귀촌을 구분하여 생애주기별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다.

셋째는 빅데이터를 활용한 귀농·귀촌 서비스 모델(알고리즘) 개발, 귀농귀촌 정책수립 지원 전략 제시이다.

귀농귀촌 정보나 서비스는 통계형 데이터, 단순 정보제공으로 운영되어 왔기 때문에 개인별 특성, 생애주기가 반영되지 못하였으나 이번 사업을 통해 도내 귀농귀촌인 유입을 위한 생애주기별 맞춤형 서비스 체계가 갖춰진다.

/김진성 기자

도내 우수인재 해외연수 대장정 돌입

초·중학생 총 347명, 뉴질랜드·캐나다 등 4개국 체류

‘글로벌 시대의 우수인재 육성’을 위한 2017년 전라북도 글로벌체험 여름학기 해외연수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올해 글로벌체험 해외연수는 지난 7월 15일 초중학생 40명의 뉴질랜드 오클랜드지역 출국을 시작으로 여름학기 해외연수 대장정에 돌입했다.

이번 여름학기 해외연수는 중국 55명(7.22일), 호주 80명(7.28일, 7.29일), 뉴질랜드 38명(7.29일), 캐나다 134명(8.7일, 8.8일) 등 총 347명의 전북인재들이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중국 등 4개국에서 실시된다.

연수생은 6주의 연수기간동안 현지 홈스테이(중국인 기숙사)생활을 하면

서 4주 집중어학 연수과정과 2주 공립학교 학생들과 함께 정규수업에 참여하게 된다. 주말을 활용하여 명문대학 탐방, 전통문화체험 등을 하게 된다.

이번 연수를 통해서 어학실력 향상과 각국의 생활문화 등을 직접 경험하고 각국의 문화 및 유적지 탐방을 통하여 글로벌 마인드 형성의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도 최성용 자치행정과장은 “해외연수생들이 전라북도 해외연수를 계기로 세계의 언어,문화,인적교류 등의 많은 경험을 쌓고, 그 경험이 미래를 설계하는데 큰 재산이 될 수 있도록 열정적으로 참여”해 주기를 당부했다.

/김진성 기자

부동산 거래 전자계약 내달 1일부터 전면 시행

전북도는 내달 1일부터 ‘부동산 거래 전자계약’을 전면시행 한다고 밝혔다. ‘부동산 거래 전자계약 시스템’은 종이계약서 및 인감 없이 컴퓨터, 스마트폰 등을 이용하여 간편하게 거래를 체결하고, 실거래 신고 및 확정일자 등을 인스톨로 처리하는 시스템이다.

부동산 전자계약은 기존의 부동산거래 절차와 동일하며, 종이로 작성하던 거래계약서만 컴퓨터, 태블릿pc, 스마트폰 등을 사용하여 작성하는 것으로 이 경우 온라인 네트워크를 통해 실거래 신고 및 확정일자가 자동 처리되므로 별도로 행정기관을 방문, 신고할 필요가 없다.

부동산 거래 전자계약 시스템을 활용 계약을 체결 하였을 경우, 전세권설정 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에 따른 등기

수수료를 30%정도를 절감 할 수 있으며,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등의 첨부물이 생략되고, 은행 대출시 우대금리를 적용 받을 수도 있다.

또한, ‘부동산 거래 전자계약 시스템’은 계약서 위·변조 및 부실한 확인 설명을 방지하고, 무자격·무등록자의 불법중개행위를 차단하고 공인중개사 및 거래당사자의 신분 확인을 철저하며, 개인정보 암호화로 안심거래를 지원할 수 있다.

전북도는 전면 시행 초기 우려되는 부동산 거래 전자계약 혼란 최소화를 위해 도내 개업공인중개사 및 중개인, 중개법인, 소속공인중개사 3,171명을 대상으로 7월 24일 도청 공연장(3층)에서 ‘부동산 거래 전자시스템’ 활용 교육을 한다.

/김진성 기자



테이블 직접 옮기는 문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청와대 상춘재에서 열린 정당 대표 초청 정상외교 성과 설명회 전 여야 대표들을 기다리며 테이블을 직접 옮기고 있다.

전북도 블로그 방문자 700만명 돌파

전라북도 공식 블로그인 ‘전북의 재발견(<http://blog.jb.go.kr/>)’이 누적 방문자수 700만명을 돌파했다.

19일 전북도에 따르면 2009년 4월 1일 개설해 올해로 9년째를 맞은 전라북도 블로그는 방문자 수 700만(7.3 기준)을 달성하고 7월 18일 현재 707만1,027명을 기록하고 있다.

이는 국내 최대 블로그 데이터 분석 서비스인 블로그차트(www.blogchart.co.kr) 기준 국내 총 1,276만 5,132개 블로그 중 상위 0.1%에 해당

한다. 전북의 재발견은 정책, 여행, 일상, 문화 등 4개의 섹션으로 나뉘어 전라북도의 다양한 소식을 전하는 블로그로 올해에만 92만3,897명, 일평균 4,643명이 방문했다.

특히 지난 4월에는 지리산 둘레길 관련 포스트가 네이버 메인 화면에 노출되면서 하루 동안 1만회 이상의 조회 수를 기록했다.

전북도는 방문자 수 700만 돌파를 기념해 7월 한 달간 블로그 내 이벤트를 실시해 방문자 30명에게 경품을

제공할 예정이다.

올해 전라북도 블로그는 취재 능력이 우수한 일반인과 대학생 등 40명이 기자단으로 활동하고 있는데 서울, 부산 등 타 지역 거주 기자 12명도 포함된 전라북도 콘텐츠에 대한 다양한 시각의 기사로 방문자들의 공감을 이끌어내고 있다.

특히 2017 세계태권도대회, 제22회 바다의 날, 2017 FIFA U-20 월드컵 등 도내에서 열린 대규모 국제행사를 현장중심의 콘텐츠로 작성하고

다양한 기사, 공감 이끌어 내 전 국민 소통창구 역할 특목

전북 정책인 ‘전라북도 투어패스’를 체험 시리즈로 엮어내면서 다소 딱딱했던 정책을 시민들이 보다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백치석 홍보기획과장은 “전라북도 블로그는 전북의 다양한 소식을 보다 쉽게 알릴으로써 전국민과 소통하는 창구 역할을 하고 있다”며, “전북 속 숨은 보물을 찾듯이 전라북도의 매력을 알리는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진성 기자

도,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 지원에 행정력 결집

전북도가 가축분뇨법에 따른 축사 사용 중지, 폐쇄명령 등의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축산농가들이 무허가축사 적법화를 완료할 수 있도록 힘을 쏟는다고 19일 밝혔다.

지난 2014년 3월 24일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2018년 3월 24일까지 무허가 축사는 적법화를 완료해야 한다.

전북지역 무허가축사 적법화 대상은 4,610호로 6월말현재 적법화 완료농가는 547호(12%)로 실적은 낮은 상황이다. 그동안 전북도는 무허가축사 적법화 농가 홍보를 위해 농가교육 100여 회, 플래카드 게시 2백여곳, SNS 문자 발송 2만건 등을 발송한 바 있다.

또한 농가 1:1 상담을 위해 도 및 시

군에 적법화 상담상황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행강제금을 감경할 수 있도록 시군 건축조례 개정 및 건축사협회에 설계비 감경을 요청해 적법화에 소요되는 비용을 조금이나마 절감토록 했다.

앞으로도 농가전담 공무원제를 통해 농가 홍보와 설계사무소 연결 등을 적극 지원하며 축산,환경,건축 등 적법화 관련부서로 협의체를 구성, 인허가를 인스톨로 처리토록하고 매월 부단체장 영상회의를 통해 적법화 추진상황을 점검, 독려 할 계획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적법화 기간이 250여일 밖에 남지 않았으므로 시군 부단체장의 강력한 의지로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여 적법화를 지원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김진성 기자

“전주매일신문은
항상 도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www.ijmaeil.com